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베트남을 침략했는가? 1954년부터 1965년까지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냉전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인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최초로 군사적 패배를 경험한 전쟁이다. 총인원 280만의 참전했고, 5만 8천 명이 전사했으며,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미국은 이 전쟁에 동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와는 별개로 베트남 전쟁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전쟁이기도 하다. 1776년 건국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 반전운동이 미국 내에서 일어났고, 심지어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마저 자신들이 받은 훈장을 백악관 건물에 던지는 일도 일어났다. 이처럼 베트남 전쟁은 전쟁의 주체인 미국에서도 대규모의 반발에 휩싸이게 됐다.

그렇다면 베트남 전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1960년대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전쟁을 “공산 월맹의 침략으로부터 자유월남을 구하기 위한 전쟁”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는 박정희 정부가 제국주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내세운 주장이었을 뿐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 베트남 전쟁의 원인은 1971년 이른바 펜타곤 페이퍼가 유출되면서 그 진상이 드러났다. 이것은 결국 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의 사악한 음모와 계략에서 시작된 전쟁이었다. 즉 당시 미국이 적으로 내세운 북베트남의 호치민과 공산당 그리고 남베트남의 베트콩 전사들은 과거 일본과 프랑스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자신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 따라서 오늘은 제국주의 국가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베트남을 침략했는지 얘기해보고자 한다.

1. 미국과 디엠정권의 제네바 협정 파기

1954년 디엠비엔푸 전투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됐다. 그러나 프랑스의 식민지 전쟁에 물자를 지원하던 미국은 제네바 회담에서 베트남을 북위 17도선을 기점으로 남북분단시켰다. 물론 여기에는 “2년 이내에 남북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북베트남에는 프랑스에 맞서 싸웠던 호치민 정권이 들어섰고, 남베트남에는 과거 프랑스가 지원한 바오다이 정권이 유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남베트남을 자신들의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반공주의적 민족주의자 응오딘지엠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의 이승만인 응오딘지엠은 제네바 회담 시기 바오다이가 총리로 임명한 인물로 공산당에 대한 혐오감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우선 응오딘지엠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바오다이 황제를 부정선거로 축출하고, 1955년 남베트남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시기 남베트남에서 항불투쟁을 했던 전직 베트민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 했으며, 미국 아이젠 하워 대통령과 더불어 총선거를 파기해 버렸다.

미국의 아이젠하워와 남베트남의 응오딘지엠이 총선거를 파기해버린 이유는 간단했다. 민중의 80%가 호치민과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이 두명의 반공주의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총선을 파기함과 동시에 응오딘지엠은 전직 베트민 투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구금하고 처형하는 천인공노할 만행들을 남베트남 곳곳에서 저질렀다. 그러면서 남베트남의 내각을 민주적인 투표로 결정된 인물들이 아닌 가톨릭 신자들과 디엠의 일가친척들로 구성했다. 응오딘지엠은 동생 응오딘 누를 수석보좌관으로, 응오딘 누의 부인 마담 누를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퍼스트 레이디로, 마담 누의 아버지는 미국 대사로, 어머니는 유엔 옵서버로, 자기의 친형은 후예의 추기경으로, 다른 2명의 형제들은 지방의 권력자로 임명하였으며, 사촌들과 일가친척들에게는 내각의 주요 직책과 지방 관공서의 요직을 내주었다.

2.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 창설과 케네디 정부의 고문단 지원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고 응오딘지엠 정권을 지원한 미국은 남베트남을 자신들의 반공기지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미국의 남베트남 정권 지원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와중에 진행됐고, 응오딘지엠 정권 하에서도 지속됐다. 이에 따라 남베트남에는 소수의 미군사고문단이 활동했다. 그러나 응오딘지엠 정권은 막장에 가까운 통치를 통해 이미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특히 가톨릭 우대 정책과 불교도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전직 베트민 인사들에 대한 구금을 가속화했다. 그 결과 분노한 민중은 1960년에 군사조직을 창설했는데 그것이 바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즉 베트콩이다.

초기의 베트콩은 남베트남의 응오딘지엠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활동했었다. 1960년에 창설된 베트콩은 과거 프랑스에 협력한 반역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던 남베트남군 보다 훨씬 높은 전투력을 보였다. 거기다 남베트남군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미고문단이 지원한 무기들이 베트콩측에게 넘어갔다. 베트콩의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미군사고문단 지원도 급증했는데, 특히 존 F. 케네디 정부가 등장하면서 확장됐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부터 남베트남에 주둔한 미군사고문단의 숫자를 증강했다. 고문단으로 파견된 병력 중에는 이른바 그린베레로 불리는 대게릴라전 특수부대도 있었다. <베트남 미국의 홀로코스트>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마틴 쉰의 표

현을 빌리자면, 프랑스 베레모에서 미국의 그린베레로 바뀐 셈이다. 이들은 남베트남군을 지원함과 동시에 남베트남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민병대로 훈련시켰다. 또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도 활동했다.

또한 케네디는 네이팜 폭탄 사용과 인체에 치명적인 고엽제 살포를 허용한 장본인이었다. 이에 따라 베트콩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남베트남의 시골에는 네이팜 폭탄과 고엽제가 살포됐다. 그리고 미군의 최신식 전투 헬기와 장갑차량 등의 기계화된 전쟁무기들이 남베트남군에게 지원됐다. 즉 미국은 베트남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이 시점부터 동원했다. 더 나아가 케네디의 최측근인 로버트 맥나마라는 응오딘지엠의 동생 응오딘누를 도와 전략촌 계획을 세웠고, 이런 전략촌 건설은 남베트남 농민들의 반발을 제대로 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전략촌은 1963년에 베트콩에 의해 파괴됐다.

3. 응오딘지엠 암살과 통킹만 사건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베트콩들은 남베트남군과의 전투에서 항상 우수한 성과를 올렸고, 남베트남군은 부정부패와 무능력 그 자체였다. 그리고 케네디 정부가 지원한 응오딘지엠 정권은 독재 정치와 부정부패로 인하여 민중들의 반발을 제대로 사고 있었다. 특히 1963년 6월 남베트남의 한 승려가 수도 사이공 거리에서 분신자살을 하자, 민중들의 반응오딘지엠 집회도 더 심해졌다. 응오딘지엠 정권은 반체제 시위를 계엄령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이들이 구금되고 투옥됐다.

응오딘지엠 정권의 폭력적이고 부패한 체제에 회의감을 느낀 케네디는 CIA를 동원하여 남베트남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응오딘지엠을 제거해버린다. 응오딘지엠 암살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 정권 또한 쿠데타에 시달렸고, 정권 전복을 시도한 쿠데타는 1965년까지 지속됐다. 즉 이렇게 되면 남베트남은 민중 봉기로 무너질 상황이었다. 이런 혼란속에서도 미국의 지원은 지속되어 1964년에는 남베트남 주둔 미군사고문단의 숫자가 3만 명을 돌파했다.

혼란스러운 남베트남 상황에 우려를 느낀 미국의 린든 B. 존슨 정부는 맥스웰 테일러,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그리고 로버트 맥나마라 등과 논의하여, 베트남 침략전쟁을 시작할 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통킹만 사건이다. 이들의 계획에 따라 1964년 7월 31일 남베트남 공격 보트들이 다낭을 떠나 북베트남 영해에 진입하여, 북베트남의 섬 혼메(Hon Me)와 혼니우(Hon Nieu)에 상륙했다. 또 한 이들은 그 전에 라오스에서 비밀리에 공중 작전을 벌였다.

작전에 따라 북베트남 영해에 잠입한 미국 구축함과 해군들은 1964년 8월 2일 통킹만에서 1차 교전을 벌였고, 2일 뒤인 8월 4일에는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통킹만 공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 발표에 따르면 2차 공격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는 미국 측의 자작극이었다. 즉 여기서 베트남 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미국 측의 새빨간 거짓말이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린든 B. 존슨은 뻔뻔스럽게도 다음 날인 8월 5일 미공군을 출격시켜 북베트남 어뢰정 기지, 석유 저장소 등 4개소를 공격하고 어뢰정 및 그 밖의 함정 25척을 격침 또는 격파했다. 이것은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행해진 미국 측의 침략행위였다. 이른바 북폭을 감행한 미항공기 중 하나가 격추됐고, 탈출한 조종사는 북베트남군의 포로로 붙잡혔다. 이러한 기만과 위선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1964년 통킹만 사건이었던 것이다.

4. 북폭과 미지상군 파병

통킹만 사건 이후 남베트남 주둔 미군사고문단의 숫자 또한 계속 증가했고, 이에 따른 베트콩 측의 대응도 격해졌다. 1964년 12월 사이공 근처에 있던 비엔hoa 공군기지가 공격받아 수십대의 항공기와 헬기가 파괴되는 사건과, 그 다음 해인 1965년 2월 중부고원지대 플레이쿠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기지가 베트콩의 공격을 받아 미군 8명이 전사하고 100명이 부상당하자 미국은 이에 대한 엄청난 보복을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롤링썬더 작전이었다.

롤링썬더 작전은 1965년 3월 2일에 게시됐다. 미군 항공모함과 비행장 그 외의 기지에서 이룩한 항공기와 폭격기들이 북베트남 전역을 말 그대로 달의 표면으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폭격을 감행했다. 이러한 폭격은 당연히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민간인 사망자도 급증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최소 200만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민간인 사망자 대다수는 이런 미군의 무차별 폭격에서 나온 것이었다.

미국의 린든 존슨 정부는 북폭 게시와 더불어 지상군 파병을 감행했다. 베트남의 첫 번째 파병 부대로는 미 해병대가 선택되었다. 대략 3,000명 정도의 미 해병대가 남베트남의 항구도시이자 휴양지인 다낭(Da Nang)에 상륙하는 걸로 결정됐다. 1965년 3월 8일 미국 정부는 극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 미 해병대 대원들로 하여금 상륙정에 태워 해안가에 상륙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1858년 침략자 프랑스 군대가 다낭에 상륙한지 100년 만에 또 다른 외세의 지상병력이 베트남을 침략했다.

1달 뒤인 1965년 4월 존슨은 병력 4만을 추가로 파병했고, 남베트남 주둔 미군은 7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남

베트남 주둔 미군의 숫자는 1965년 말에 20만으로 증가했으며, 그 이후에는 더 증가하여, 최대 병력 54만 9,00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미국의 베트남 침략 전쟁의 발판은 이런 식으로 마련됐고, 또 전개됐다.

5. 결론: 따라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침략전쟁이다.

지금까지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 이후 시점부터 1965년 린든 B. 존슨 정부가 북폭 게시와 더불어 대규모의 지상병력 파병까지를 알아보았다. 베트남 전쟁은 이렇게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만과 위선속에서 계획되고, 실행된 전쟁이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라는 위선적이고 부르주아적인 단어를 통해 남베트남 친불 매국노 정권에 대한 지원을 합리화 했다. 또 미제국주의자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우던 호치민과 민족해방세력들을 그저 빨갱이로 몰이하는 철면피스러운 행위를 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베트남 민족반역자 정권을 지원하며, 북폭이라는 천인공노할 대량의 민간인 학살을 게시했다. 그리고 1858년 프랑스 제국주의 군대가 상륙했듯이, 다낭에 미제국주의 상륙부대의 주력인 미해병대를 상륙시키는 이미지 메이킹도 시도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보았을 때, 베트남 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거짓말과 위선 그리고 기만속에서 일으킨 침략전쟁이다